

21세기로 밀려오는 '과학기술혁명'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변혁논의의 첨단이슈로 등장

변혁논의의 실마리 제공

“서구의 나라들이 고도의 기술과학의 시대”로 이행하는 동안 소련사회는 “과거의 기술시대에 남겨진 신세가 돼버렸다”고 말한 고르바초프의 한탄은 과학기술혁명의 결과에 기초한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역설이었다. 이후 ‘과학기술혁명론’은 소련·동유럽 개혁논의의 핫이슈로 주목받게 됐고, 최근에 이르러 국내에서도 변혁논의의 중대한 실마리로서 ‘과학기술혁명론’을 제기하는 관련서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과학기술혁명(Scientific-Technological Revolution)이란, 과학기술이 사회의 직접적인 생산력을 담당함으로써 비약적인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고, 이에 따라 사회의 수많은 요소들을 변화시켜 이른바 ‘혁명’의 상황을 초래하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자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노동계층을 형성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최고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동시에 생태계 파괴, 인간소외, 전쟁 등 지구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내포하기도 한다.

결국 과학기술혁명과 관련된 문제는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게 된 역사를 다시금 더듬게 했고, 그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캐는 철학적 노력을 필요로 했으며, 그것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규명케 하는 많은 논의들을 끌어모으는 거대한 흡인판으로 자리하게 됐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대략 기술적·자연과학적

측면, 철학적·이데올로기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의 세 갈래로 나뉜다. 국내에 소개된 관련 서적은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씩 포괄하는 개론서의 성격을 띠는데 개별주체의 심화된 이론서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철학적 본질과 결합의 역사

과학기술혁명의 본질적 의미는 마르크스가 이미 「철학의 빈곤」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요인”으로 ‘기술’을 지적했는데, 바로 이 ‘물질적 생산양식’에 관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체계화한 책이 「마르크스의 기술론」(A.A. 쿠신 지음, 노태천 옮김, 문학과지성사)이다. 쿠신은 마르크스가 다져놓은 ‘기술’에 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찾아 기술론으로 정리, 과학기술혁명이론 전개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마르크스의 기술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하는데, 「자연인식과 세계관」(H. 회르츠와 외 지음, 김성환 옮김,天池)은 이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여 철학적 이해를 돕는다. 통일 이전 동독 저자들의 일관된 논지로 현대과학의 성과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에 부합함을 강조하면서 과학과 변증법적 유물론과의 ‘굳건한 결합’에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이 책은 과학과 철학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 냉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깊숙이 감지할 수 있는데, 과학과 기술의 접근과정을 살핀 「과학기술사」(석동호 편저, 중원문화)와 과학관의 변천을 사회경제적 측



면에서 조명한 「과학과 사회의 현대사」(나카야마 시게루 지음, 이필철·조홍섭 옮김, 풀빛)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시도하고 있다.

앞의 책은 과학기술이 사회발전과 사상이 진보함에 따라 발전했음을 입증하는 논지를 지닌다. 즉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계몽사상에 힘입은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과학이 확립됐고, 기계론적 자연관 대신 신실증주의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 현대적 모순을 낳았다는 일련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다. 뒤의 책은 과학과 사회가 어떻게 연관되면서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는가를 세밀히 조망한다. 이 책은 과학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19세기 아카데미즘적인 과학계를 비판하면서도 20세기 후반에 고개를 든 서구세계의 ‘반과학’ 조류를 경계하고, 한편으로 ‘비판과학’ ‘대중을

위한 과학’을 주창한 점에서 일견 「현대문명의 위기와 기술철학」(조셉 애거시 지음, 이군현 옮김, 민음사)의 논지와 닮았다. 이 책은 이른바 과학기술의 위력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리란 인식 위에 있지만, 저자는 극우 기술관료주의나 반기술주의, 급진환경주의를 모두 배격한다. ‘민주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인간소외 등 기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론인데, ‘교육의 힘’을 기대한 저자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 책은 대답이 없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답변을 「현대과학기술과 인간해방」(조홍섭 편역, 한길사)에서 다소간 찾을 수 있다. ‘민중을 위한 과학기술론’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이 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전문가에게 일임한 현대인의 무력감을 ‘공해반대주민운동’ 같은

“스님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걸망 속에 옷 두어 벌과 콘사이즈 하나만을
챙겨놓고 세계여행길에 오른 원담스님.
황당한 여행계획, 짧은 어학실력,
몇 푼 되지 않는 돈……
다소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함께 떠나보자.
재치와 배짱으로 이어지는 웃지 못할 사건들,
세계 곳곳의 문화에서 느끼는 남다른 감흥,

걸망 속에 세계를 담고

□ 원담 지음/값 3,500원

또 생생한 경험만이 줄 수 있는 여행의 맛과 자유
그 모든 것들을 스님과 함께 담아 오자.
세계를 담은 걸망 속에 —

♣ 실수연발 원담스님 세계여행기!!



진선출판사 720-5990 · 1

실천적 운동으로 극복할 것을 암시해준다.

페레스트로이카 뒷받침 위한 이론으로 제시

과학기술혁명의 개념이 증폭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고르바초프가 '신사고'의 바탕으로 과학기술혁명을 지목한 이후부터일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뒷받침하는 논리전개로 저술된 책들이 적잖이 눈에 띄는 것도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 특수'의 작용이 크다. 예컨대 소련의 경제학자 안치슈킨의 「사회주의의 미래와 과학기술혁명」(김성환 옮김, 푸른산)이나 「과학기술혁명이란 무엇인가」(G. 마린코 지음, 김성환 옮김, 백산서당), 「과학기술혁명입문」(동녘) 등이 그러하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이 소련과 동구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원론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이들 책은 한 테두리 안에 묶여진다. 첫째로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 경제사회구조의 심각한 문제성을 시인하고, 둘째 그 돌파구로서 생산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을 제시했으며, 셋째 과학기술혁명들이 오랜 역사를 통한 축적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드러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안치슈킨이 첨단기술개발이라든가 기초과학과 기술·생산과의 결합, 자동화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계획적인 조정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 시선을 안으로 고정시켰다면, 마린코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혁명이 제3세계를 구원할 것인가, 또는 지구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입문」은 과학기술혁명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각각 어떻게 발전됐고 그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함으로써 소련의 성과를 선전차원에서 제시하는 또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와 과학기술혁명」(R. 리호타 외 지음, 김동석 편역, 동녘)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논의를 다룸으로써 앞서의 책들과 약간 시선을 달리한다. 즉 자본주의하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학기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지배계급이 생산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은 더욱 절극에 빠진다는 것.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신식민주주의'라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제국주의정책'으로 노골화되며 과학기술의 군사화라든가, 실업, 인간소외 등의 잠재적 문제를 낳는다. 오늘날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이 사회주의사회 개혁의 주요 추동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체제의 우월성'이라는 당의 정으로 포장하기에는 아직 선부른 감이 있음은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첨단주제로 부각된 '과학기술론'

과학기술개발의 문제는 이제 '저임금의 경쟁력'을 더이상 미덕으로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경제현실에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보였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사상문예운동」(1990. 여름) 「경제와 사회」(1990. 겨울) 「철학연구」(1990. 가을) 등의 계간지에서 이 문제를 특집의 형태로 각각 짚어봄으로써 우리사회의 첨단주제로 충분히 부각됐다.

이러한 학계 저변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과학기술혁명의 특질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산업발전과 계급구조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역사흐름에 견주어 분석한 「현대 한국의 생산력과 과학기술」(한국사회사연구회, 문학과학지성)은 이 관계의 본격적인 국내 저서로서 주목된다. 6편의 논문 가운데 특히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김환석)에서 저자는 기술원조에 의존한 50년대, '모방혁신'의 60년대, 기술도입의 '외래혁신'인 70년대, '외래혁신'과 '모방혁신'의 결합형태인 80년대, 80년대 말 이후의 '독창적 혁신' 발아기 등 시대구분을 통해 한국의 기술혁신이 모방·외래혁신의 도입으로 이뤄졌다는 특수성을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단순히 '기술'의 '종속'이라는 관점에서만 다루기보다 사회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된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는 달리 국내 연구소와 기업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노동자들의 모임인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가 펴낸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한길사)는 과학기술혁명론을 현대세계의 거대한 흐름으로써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총체적 틀로 제시한다. 과학과 철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와 '인간을 위한 과학'의 모색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전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수준, 과학기술자운동의 양태 등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의 이론과 방향, 위상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운동」(은누

리)은 아직도 사무직, 전문기술직이라는 인식 속에서 '탈속련'된 또는 '사회와는 무관한'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 시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이밖에 과학이 어떻게 사회경제 구조와 연관되면서 생산력 발전을 담당하게 됐는가, 현대 과학기술이 낳은 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를 쉽게 풀이한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안재구 지음, 竹山)가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이해를 돕기 위해 유용하다.

본격저서 밑거름된 두터운 관심 필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가령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퍼올리는 행위가 도구에 마음이 사로잡혀 인간의 자연스런 심성을 해친다 하여 손수 물을 떠 발에 주었다는 노인이야기가 담긴 「장자」의 교훈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자본주의 구조와 사회주의의 개혁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바로 그 밑바닥은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분화구에서 분출한 과제임을 깨닫게 된다.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더욱 두터운 관심과 연구로 쌓여져 본격적인 저서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지원 기자

우리말 성경에 대한 총체적 연구서

18개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 많은 화제 속에 4개월 만에 재판

우리말 성경연구의 역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해설, 번역의 문제점 지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말 성경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알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책 중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하여 그 번역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조선일보를 비롯한 5대 일간지와 일반 및 기독교계의 주간지, 월간지 등 18개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 화제의 책 “우리말 성경연구”는 초판이 나온 후 4개월만에 재판되었다.

우리말 성경연구

나채운 지음/신국판 616면/양장 케이스/값 11,000 원

“한국 그리스도교계에서 출판되는 책 중에 참으로 독창적인 착상과 오랜 자료수집과 독자적 구상에서 쓰여진 책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 나채운 교수의 <우리말 성경연구>는 주목할 만한 책이다. ... 누가 이렇게 단일한 주제를 이만큼 상세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 우리말 성경번역의 내막과 취지, 그 번역물들의 장단점, 평가등 셀 수 없을 만큼 이 책에서 다루어진 요목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사함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경연 명예교수(한신대학)의 서평

“어떻게 이와같은 치밀한 연구를 해냈을까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우리 한국교회사 100년을 겨우 넘어선 이 마당에서 우리말 성경에 대한 이와같은 연구서가 나오는데 대하여 큰 공지를 느낀다.”
이상근 목사(신학박사, 대구제일교회)의 서평

발행 기독교문사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5-13
전화 : 741-5181-4
팩시 : 741-5185

총판 기독교문사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412-2
동대문우체국 사서함 270호
전화 : 266-2117-9, 팩시 : 266-6397

총판 반포교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25-1
반포소필타운 7동 2층
전화 : 534-5123-5, 팩시 : 599-7302